Global Market Monitor

2016. 5. 9

불확실성 확대로 차별적 움직임

2016년 5월 1주

옥혜인

Analyst

hyein.ok@samsung.com
02 2020 7795

유승민

Chief strategist

strategist.you@samsung.com
02 2020 7024

-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차별적 움직임:** 글로벌 시장의 자산별 선호는 지난 한 주간 차별적으로 움직였다. 채권형 펀드의 순유입이 이어지고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었으나, 위험자산 선호 추세도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신흥 시장은 선진 시장보다 유출 강도가 훨씬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장주와 소형주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빗나간 반면 유럽의 GDP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등 상반된 정보가 계속 시장에 유입되고, 미국 대선과 북핵 문제 등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일종의 바벨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자산인 채권형 펀드를 계속 매수하는 한편, 주식 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이 높은 쪽에 투자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적 전망 조정세:** 그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실적 전망 추이는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선진시장의 EPS 전망치는 전주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 예상 EPS 증가율은 선진, 신흥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이익수정비율은 선진, 신흥시장 모두 하향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익수정비율은 추정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실적 하향조정이 large cap 위주로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성장주, 소형주 선호 전환:**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가치주 선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약세를 이어가던 성장주가 지난 한 주간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신흥시장 및 한국 증시에서 선호가 두드러졌다. 한동안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던 사이즈 별 상대강도에서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위험자산 쪽으로 선호가 이동하고 있는 상반된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별 주간 수익률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stock market: Performance

- 지난 한 주 증시는 그리스를 제외한 주요국 모든 증시가 동반 하락하였다. 유가 약세 및 경기 불확실성이 증시를 전반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증시 수익률

국가	수익률 (in Local currency, %)				수익률 (in USD, %)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DM	(1.3)	0.2	6.2	(3.1)	(1.7)	0.6	7.8	(1.2)
미국	(0.4)	(0.5)	9.6	0.3	(0.4)	(0.5)	9.6	0.3
영국	(1.9)	(0.5)	4.5	(1.9)	(3.4)	1.9	4.1	(3.9)
프랑스	(2.6)	0.8	2.5	(6.3)	(2.8)	1.3	5.1	(1.5)
독일	(2.5)	0.8	4.4	(9.5)	(2.8)	1.3	7.1	(4.9)
이탈리아	(4.0)	3.3	2.9	(17.5)	(4.2)	3.7	5.5	(13.3)
스페인	(4.0)	4.1	2.4	(8.8)	(4.2)	4.6	4.9	(4.1)
포르투갈	(0.2)	6.6	5.7	0.9	(0.5)	7.0	8.3	6.1
그리스	6.1	17.4	34.7	(8.9)	5.8	17.9	38.1	(4.2)
일본	(3.3)	2.4	(5.6)	(16.6)	(3.0)	5.6	3.6	(5.9)
홍콩	(3.4)	(0.6)	8.4	(3.7)	(3.5)	(0.6)	8.9	(3.8)
싱가포르	(4.1)	(3.3)	3.9	(5.0)	(5.2)	(3.9)	7.3	(1.0)
이스라엘	(2.8)	(3.2)	(6.6)	(14.0)	(4.1)	(2.9)	(4.7)	(12.0)
EM	(2.8)	(0.8)	5.4	(0.7)	(4.1)	(0.5)	8.9	1.4
중국	(4.3)	(2.3)	6.4	(9.1)	(4.4)	(2.4)	6.7	(9.2)
한국	(0.5)	0.4	4.1	0.9	(1.8)	0.6	8.0	2.5
인도	(0.9)	1.3	2.5	(3.0)	(1.2)	1.4	4.2	(3.6)
인도네시아	(0.6)	(2.7)	(2.8)	3.9	(1.0)	(2.9)	0.0	8.2
말레이시아	(1.4)	(3.8)	(0.3)	(1.7)	(3.8)	(5.9)	3.5	5.4
필리핀	(2.3)	(2.3)	3.2	0.1	(2.7)	(4.1)	4.4	0.1
대만	(3.3)	(4.8)	0.2	(3.1)	(3.8)	(4.7)	3.0	(1.8)
태국	(1.4)	1.6	6.6	10.6	(2.1)	2.0	7.6	13.2
브라질	(4.1)	6.8	24.8	17.3	(6.5)	10.9	38.4	31.2
멕시코	(1.5)	(0.6)	4.4	5.4	(6.2)	(1.9)	6.6	1.1
러시아	(3.4)	2.2	8.7	9.2	(4.9)	5.3	23.7	18.5
UAE	(4.4)	1.1	8.6	5.2	(4.4)	1.1	8.6	5.2

참고: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MSCI DM vs EM 지수 추이

(지수화, 2013년 12월 31일 = 100)

MSCI EM vs Korea 지수 추이

(지수화, 2013년 12월 31일 = 100)

참고: Local currency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stock market: Earnings momentum

- 그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실적 전망 추이는 이번주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선진시장의 EPS 전망치는 전주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 예상 EPS 증가율은 선진, 신흥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DM 및 선진 주요 5개국 EPS 추이

EM 및 신흥 주요 5개국 EPS 추이

DM 및 선진 주요 5개국 EPS momentum

EM 및 신흥 주요 5개국 EPS momentum

DM: 이익수정비율(ERR) 및 12m forward EPS growth

EM: 이익수정비율(ERR) 및 12m forward EPS growth

참고: MSCI 지수 기준, EPS momentum은 forward 12개월 EPS의 전년 동기 대비 % 차이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stock market: Valuation

-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P/E 기준 선진시장 15.8배, 신흥시장 11.5배를 기록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도 계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 Valuation

국가	P/E (배)			P/B (배)			ROE (2016E, %)	DY (2016E, %)	EPS growth (%)	
	Forward	2016E	2017E	Forward	2016E	2017E			2016E	2017E
DM	15.8	16.6	14.6	2.0	2.0	1.9	12.3	2.7	1.5	13.3
미국	17.0	17.9	15.7	2.6	2.6	2.5	15.3	2.2	1.0	14.2
영국	15.7	16.7	14.1	1.7	1.7	1.7	10.9	4.3	(5.6)	18.6
프랑스	14.0	14.5	13.0	1.3	1.4	1.3	9.6	3.8	(0.8)	11.3
독일	12.4	12.9	11.6	1.4	1.5	1.4	11.5	3.3	(1.0)	11.5
이탈리아	12.7	13.7	11.2	0.9	0.9	0.9	7.0	4.5	39.5	21.9
스페인	12.5	13.1	11.4	1.1	1.1	1.1	8.7	4.8	3.6	14.3
포르투갈	13.5	14.2	12.3	1.4	1.4	1.3	10.3	4.1	(1.1)	15.4
그리스	12.1	12.8	11.1	0.8	0.9	0.8	6.9	3.2	27.7	15.0
일본	12.4	14.5	12.5	1.0	1.1	1.0	8.4	2.3	1.0	16.2
홍콩	14.3	14.7	13.6	1.0	1.1	1.0	7.2	3.6	4.4	7.7
싱가포르	11.8	12.0	11.3	1.0	1.0	1.0	8.6	4.4	(1.1)	6.2
이스라엘	10.6	10.9	10.0	1.3	1.4	1.3	12.5	2.1	3.8	9.9
EM	11.5	12.0	10.5	1.3	1.3	1.2	11.0	2.9	7.0	14.2
중국	10.1	10.6	9.3	1.2	1.2	1.1	11.7	2.7	3.1	14.0
한국	10.4	10.6	9.9	0.9	0.9	0.9	8.8	1.9	3.9	7.7
인도	16.9	17.2	14.6	2.5	2.5	2.3	14.9	1.7	16.9	17.8
인도네시아	14.9	15.5	13.7	2.5	2.6	2.3	16.5	2.5	10.9	13.5
말레이시아	15.2	15.8	14.5	1.6	1.6	1.5	10.3	3.1	2.3	9.2
필리핀	17.5	18.1	16.5	2.3	2.4	2.2	13.3	1.9	8.4	9.3
대만	11.8	12.2	11.2	1.4	1.4	1.4	11.9	4.4	(1.3)	9.3
태국	14.0	14.7	12.9	1.7	1.7	1.6	12.1	3.1	6.6	13.9
브라질	12.1	13.6	10.0	1.2	1.2	1.1	9.7	3.5	70.5	35.6
멕시코	17.9	18.8	16.4	2.3	2.3	2.1	12.6	2.0	42.3	14.3
러시아	11.4	12.3	9.9	1.0	1.0	1.0	8.8	2.4	(13.6)	24.9
UAE	11.6	12.1	10.6	1.5	1.5	1.4	12.8	4.4	12.5	14.2

지역별 12M Forward P/E

지역별 12M Forward P/B

참고: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sector: Performance

- 지난 주 증시는 섹터 구분 없이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하였다. 유가를 비롯한 commodity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소재 업종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IT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지수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섹터 수익률

섹터	수익률 (1주, %)			수익률 (1개월, %)			수익률 (3개월, %)			1개월 EPS change (%)		
	DM	EM	한국	DM	EM	한국	DM	EM	한국	DM	EM	한국
지수	(1.3)	(2.8)	(0.5)	0.2	(0.8)	0.4	6.2	5.4	4.1	(0.9)	(0.1)	1.4
에너지	(3.2)	(4.1)	(2.3)	5.9	3.4	(9.9)	13.1	12.9	4.9	(5.3)	4.4	12.6
소재	(3.2)	(4.2)	(5.2)	5.5	1.2	(5.7)	12.9	13.8	7.1	0.7	(0.3)	6.1
산업재	(1.4)	(3.1)	(3.4)	1.6	(1.1)	0.6	7.4	2.9	(4.7)	(0.4)	0.4	3.3
경기소비재	(0.9)	(2.5)	(1.3)	(0.4)	(1.6)	1.7	6.8	3.6	2.2	(0.7)	(0.9)	(1.0)
필수소비재	0.9	(0.7)	2.6	(0.9)	0.8	6.8	4.3	3.5	6.4	(0.1)	0.1	3.3
헬스케어	(1.5)	(2.1)	(2.3)	(1.7)	(2.2)	(10.4)	4.0	(2.0)	(16.8)	(0.0)	(1.2)	(3.4)
금융	(2.0)	(3.7)	(3.0)	2.4	(0.7)	0.4	5.2	5.4	2.5	(1.2)	(0.5)	1.5
IT	(0.5)	(1.7)	2.1	(5.0)	(3.2)	0.6	6.4	4.5	7.8	(2.1)	(0.8)	(0.1)
통신서비스	(0.5)	(3.1)	1.6	(0.2)	(0.8)	4.0	1.8	1.2	7.9	(0.1)	(1.0)	(1.6)
유틸리티	(0.3)	(1.2)	(0.5)	0.8	0.1	5.8	2.7	8.9	17.3	(0.2)	0.6	4.9

참고: Local currency 기준, MSCI 지수 및 GICS 업종 분류 기준, 12개월 예상 EPS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DM: 업종별 수익률 (1개월 vs 1주)

EM: 업종별 수익률 (1개월 vs 1주)

참고: GICS 업종 분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sector: Valuation & momentum (1)

글로벌 섹터 valuation

섹터	P/E (12m Forward, 배)				P/B (12m Forward, 배)				EPS growth (12m Forward, %)			
	Global	DM	EM	한국	Global	DM	EM	한국	Global	DM	EM	한국
지수	15.7	16.2	12.0	10.6	1.9	2.0	1.3	0.9	6.9	6.4	9.8	5.2
에너지	29.0	38.0	10.2	8.6	1.4	1.5	0.7	0.9	(9.0)	(11.2)	(4.0)	45.3
소재	18.0	18.5	15.4	11.7	1.6	1.8	1.1	0.8	15.5	5.1	135.6	40.7
산업재	16.0	16.3	13.3	14.4	2.3	2.4	1.2	1.0	13.6	13.3	16.6	6.4
경기소비재	15.4	15.6	13.9	8.0	2.5	2.6	1.7	0.8	11.2	10.9	14.3	11.9
필수소비재	20.7	20.6	21.8	21.7	3.9	3.9	3.4	2.6	7.8	7.1	17.6	13.7
헬스케어	16.4	16.3	22.0	40.0	3.4	3.4	3.5	4.9	8.5	8.3	19.9	18.6
금융	11.8	12.5	8.5	8.7	1.1	1.1	1.0	0.6	3.7	3.5	4.4	7.1
IT	16.0	16.3	14.6	11.1	2.9	3.2	2.0	1.1	7.6	7.5	8.1	(0.6)
통신서비스	15.3	15.4	14.8	10.3	2.1	2.1	1.9	0.9	7.6	6.6	12.2	6.7
유틸리티	15.0	16.0	9.3	5.4	1.5	1.5	1.0	0.5	(2.3)	(2.0)	(3.7)	(32.5)

참고: GICS 업종분류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업종별 12m P/E range

DM: 업종별 12m P/E range

참고: GICS 업종분류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Global sector: Valuation & momentum (2)

EM: 업종별 12m P/E range

한국: 업종별 12m P/E range

EM: 섹터별 EPS growth vs P/E

한국: 섹터별 EPS growth vs P/E

참고: GICS 업종분류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Global sector: Earnings growth contribution

한국 및 글로벌 업종별 이익성장 기여도

Sector	1Q16E		2Q16E	
	순이익 증가율 (% , q-q)	기여도 (%)	순이익 증가율 (% , q-q)	기여도 (%)
Global	47.9		7.0	
에너지	흑전	18.9	71.6	1.6
소재	흑전	12.2	(6.0)	(0.3)
산업재	(18.9)	(2.8)	26.6	2.1
경기소비재	21.0	3.1	8.8	1.0
필수소비재	9.1	1.0	6.1	0.5
헬스케어	58.8	8.6	1.2	0.2
금융	21.4	6.9	6.4	1.7
IT	(11.4)	(3.3)	2.1	0.4
통신서비스	(10.2)	(0.5)	(0.4)	(0.0)
유틸리티	8,877.0	3.7	(9.2)	(0.2)
한국	115.2		(5.3)	
에너지	흑전	11.3	(18.2)	(0.9)
소재	31.7	4.0	1.0	0.1
산업재	흑전	21.4	32.9	2.1
경기소비재	60.8	15.1	4.3	0.8
필수소비재	249.5	7.0	(14.4)	(0.7)
헬스케어	(54.0)	(1.1)	12.5	0.1
금융	245.8	30.3	(22.5)	(4.5)
IT	27.7	10.5	18.7	4.2
통신서비스	316.0	5.9	(23.1)	(0.8)
유틸리티	76.3	10.8	(49.4)	(5.7)

참고: GICS 업종분류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1Q16E 업종별 이익성장 기여도

한국: 1Q16E 업종별 이익성장 기여도

참고: GICS 업종분류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Global style index: MSCI 스타일 지수

-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가치주 선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약세를 이어가던 성장주가 지난 한 주간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신흥시장 및 한국 증시에서 선호가 두드러졌다. 한동안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던 사이즈별 상대강도에서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DM: 대형주 대비 소형주 상대강도

DM: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도

EM: 대형주 대비 소형주 상대강도

EM: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도

한국: 대형주 대비 소형주 상대강도

한국: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도

참고: Local currency 기준, MSCI 지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삼성증권

Fund flow: 해외

해외 Fund flow

지역	펀드규모		펀드플로우			
	금액 (백만달러)	비중 (%)	주간 (백만달러)	설정 잔액 대비 비중 (%)	4주 누적 (백만 달러)	연초 이후 (백만 달러)
GEM	385,315	5.1	689	0.2	2,307	2,394
아시아 (일본 제외)	319,543	4.3	(992)	(0.3)	(2,553)	(7,703)
라틴 아메리카	21,690	0.3	(91)	(0.4)	83	1,321
EMEA	33,781	0.5	(31)	(0.1)	(44)	83
신흥시장 소계	760,328	10.1	(424)	(0.1)	(207)	(3,905)
Global	1,510,977	20.1	833	0.1	1,758	12,452
아시아 태평양	363,316	4.8	(789)	(0.2)	(8,269)	(3,310)
서유럽	1,056,001	14.1	(2,750)	(0.3)	(11,641)	(27,229)
북미	3,813,810	50.8	(13,840)	(0.4)	(18,160)	(60,579)
선진시장 소계	6,744,102	89.9	(16,546)	(0.2)	(36,311)	(78,667)
합계	7,504,430	100.0	(16,970)	(0.2)	(36,518)	(82,572)

참고: 2016년 4월 28일~5월 4일 기준
자료: EPFR, 삼성증권

Global: 지역별 자산규모 대비 자금 유출입

EM: 지역별 자산규모 대비 자금 유출입

Global: 지역별 자금 유출입 추이*

Asia ex Japan 자금 유입 vs 한국 외국인 순매수

참고: *ETF 포함

자료: EPFR, KRX

Fund flow: 국내

국내 Fund flow

지역	설정잔액		펀드플로우			
	금액 (십억원)	비중 (%)	주간 (십억원)	설정 잔액 대비 비중 (%)	4주 누적 (십억원)	연초 이후 (십억원)
증권 및 단기금융 합계	319,887	100.0	459	0.1	17	25,183
주식형 펀드 (ETF 제외)	72,056	22.5	(214)	(0.3)	(2,028)	(1,656)
국내투자	57,296	17.9	(190)	(0.3)	(2,000)	(1,965)
해외투자	14,760	4.6	(25)	(0.2)	(28)	308
혼합형 펀드	38,428	12.0	(134)	(0.3)	(229)	(332)
주식혼합형	7,992	2.5	6	0.1	(42)	(50)
채권혼합형	30,436	9.5	(140)	(0.5)	(188)	(282)
채권형 펀드	98,162	30.7	1,653	1.7	3,953	10,569
MMF	111,241	34.8	(846)	(0.8)	(1,679)	16,602

참고: 2016년 5월 4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

한국: 주식형펀드 내 주식편입 비중

한국: 연기금 누적 순매수 동향

한국: 고객예탁금과 개인순매수

참고: * ETF제외; 2016년 5월 4일 기준; 주식형 펀드와 고객예탁금 데이터는 4월 27일 기준

자료: KRX, 금융투자협회

Fund flow: 아시아 주요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아시아 주요국가 외국인 순매수 동향

기간별 순매수 (백만 달러)	한국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주간	169	(1,558)	(114)	(26)	(114)
2주 누적	428	(1,715)	107	(104)	(262)
4주 누적	1,778	(334)	632	(92)	(190)
연초 이후	(6,522)	2,486	(2,453)	(2,825)	(1,687)

참고: 2016년 5월 6일 기준 (인도는 5월 5일)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국가별 외국인 주간 순매수 추이

한국: 외국인 순매수

대만: 외국인 순매수

일본: 외국인 순매수

인도: 외국인 순매수

자료: Bloomberg

Fixed income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 (10년-3년)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10년-2년)

Bond-swap spread (3년)

Bond-swap spread (10년)

베이스스 (1년)

베이스스 (3년)

자료: Bloomberg

FX

FX market monitor

국가	통화	Last price (1USD당)	변화율 (%)			
			1주	1개월	3개월	연초 이후
한국	Won	1,154.30	1.3	0.3	(3.6)	(1.6)
일본	Yen	107.12	0.6	(1.0)	(8.3)	(11.1)
중국	Yuan	6.50	0.3	0.5	(1.2)	0.0
홍콩	Dollar	7.76	0.1	0.0	(0.4)	0.1
인도	Rupee	66.56	0.3	0.1	(1.6)	0.6
호주	Dollar	1.36	3.2	1.9	(4.1)	(0.9)
인도네시아	Rupiah	13,348.00	1.3	1.4	(2.0)	(3.5)
말레이시아	Ringgit	4.00	2.6	2.3	(3.6)	(6.7)
싱가포르	Dollar	1.36	1.3	0.6	(3.3)	(3.6)
대만	Dollar	32.39	0.4	0.0	(2.4)	(1.4)
태국	Baht	35.12	0.6	(0.2)	(1.3)	(2.6)
베트남	Dong	22,283.00	(0.0)	(0.1)	(0.0)	(0.9)
영국	Pound	0.69	1.3	(2.5)	0.5	2.4
유럽연합	Euro	0.88	0.4	(0.2)	(2.2)	(4.8)
스위스	Franc	0.97	1.3	1.8	(1.9)	(2.9)
폴란드	Zloty	3.89	1.8	2.8	(1.7)	(1.5)
체코	Koruna	23.70	0.3	(0.2)	(2.4)	(4.8)
러시아	Ruble	66.17	2.2	(3.0)	(14.7)	(8.8)
헝가리	Forint	275.55	1.0	0.4	(0.6)	(5.0)
터키	Lira	2.93	4.7	2.3	0.3	0.2
이스라엘	Shekel	3.79	1.5	(0.1)	(2.3)	(2.5)
남아공	Rand	14.88	4.6	(2.3)	(7.1)	(4.3)
사우디	Riyal	3.75	(0.0)	0.0	(0.0)	(0.1)
UAE	Dirham	3.67	0.0	0.0	0.0	0.0
미국	Dollar	1.00	0.0	0.0	0.0	0.0
캐나다	Dollar	1.29	2.8	(2.0)	(7.2)	(6.8)
멕시코	Peso	17.87	4.0	(0.4)	(3.1)	3.5
브라질	Real	3.50	1.9	(5.1)	(10.3)	(11.6)

참고: 2016년 4월 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국가별 주간 달러환율 변화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달러/유로 환율

자료: Bloomberg

Commodity

All commodities

Energy

Industrial metals

Precious metals

Agriculture

Livestock

참고: Bloomberg commodity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주식회사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12층 리서치센터
02 2020 8000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samsung POP.com](http://samsungpop.com)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